

‘명랑대첩 축제’ 준비하는 최 술 총감독

“울돌목 대승리 웅장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낼 터”



“역사적 현장과 천혜의 자연을 무대로 412년 전 명랑대첩 승리 장면을 웅장하고 사실적으로 만들어 내 보일 것 입니다.”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 해남 우수영에서 열리는 ‘2009 명랑 대첩 축제’의 연출을 맡고 있는 최술(51·전국연극인협회 이사총장·극단 토지대표) 총 감독은 1일 “올해 명랑 대첩 축제는 다양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영화와 연극을 접목한 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 우수영에서 막바지 축제 준비에 한창인 최 감독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축제는 역사 축제의 웅장함을 살리기 위해 어선을 동원, 일본 수군 133척과 조선 수군 13척의 해전(海戰)을 스펙타클한 공연으로 승화시키고, 강강술래와 봉화 등을 재현하는 등 당시 역사적 재현을 버라이어티하게 꾸미겠다”고 말했다.

그는 축제 기간인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칼의 노래-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초대형 야

외공연을 준비 중이다. 200척의 전함과 3천여 명의 출연진이 바다 위에서 명랑해전을 재현하는 환상적인 무대를 펼쳐보일 계획이다.

또한, 412년 전 울돌목 바다에서 숨진 조선수병과 의병, 일본 수병의 원혼을 위해 8대의 상여와 1천 개의 만장 행렬이 진도대교를 건너는 평화의 노래 퍼포먼스도 기획됐다.

그는 이를 위해 축제 주무대인 울돌목 바다와 진도대교 양측의 해남 우수영, 진도 녹진 등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음향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 감독은 “명랑 대첩은 울돌목 바다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전라도 백성들의 구국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축제에는 이 3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공연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제장 주변의 인프라 구축도 한창이다. 우수영 성문이 만들어졌고, 울돌목 주변으로는 성벽 쌓기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는 “명랑 대첩 축제

는 전국 유일의 바다 위에서 즐기는 축제인 만큼 울돌목을 가로지르고 있는 진도대교 위에 소공연장과 휴식·볼거리 공간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더 많은 재미를 선물할 계획”이라며 “관객들은 마치 조선시대 명랑해전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 감독은 “명랑 대첩 축제가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남과 진도군 일대 민박을 발굴, 홈스테이 패키지를 만들어 농촌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면서 “명랑 대첩 축제가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9 명랑 대첩 축제에서는 전국 강강술래 경연대회, 수상 오토바이 대회, 조선수군 병영체험, 조선 자갈거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 일부 보직 인사 단행

수의과대학학장 이재일 교수
행정대학원장 오재일 교수
농생물관리단장 김광현 교수

전남대가 9월1일자로 일부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수의과대학학장에 이재일 교수

(수의학과)가 새로 임명됐으며, 행정대학원장에 오재일 교수(행정학과)가 인사발령을 받았다. 또 농생물관리기술관리단장에 김광현 교수(동물자원학부)가 연임됐다. 이들은 2011년 8월까지 2년간 보직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재일 학장



오재일 원장



김광현 단장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김수관 교수 임명

김수관 조선대 교수(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가 1일 치의학전문대학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수관 원장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가을 향기...’ 여류작가 초대전

어제부터 5개월간 열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오희균 교수)과 치과병원(병원장 박상원 교수)이 ‘가을 향기의 연가’라는 테마로 특별 기획 초대전(사진)을 열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미술 작품전은 전남대 치과병원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1일부터 앞으로 5개월간 전남대 치과병원 1층 아트 스페이스 갤러리(ART SPACE GALLERY)에서 열린다.

이 작품전에는 전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14명 여류 작가들의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들이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완벽한 작품성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로서 치과병원 1층 로비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치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황모 씨는 “병원에 갤러리가 있어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하고 볼거리를 제공해주셔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기분전환도 돼서 좋다”고 말했다.

오희균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치과병원이 아픈 부위만을 치료하는 곳에 그치지 않고 정신과 마음까지 카타르시스와 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자 여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세 번째 작품전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천하의 이창호 오목에서 무너지다

명인전 부대행사서
최영 하이원 사장에 패

천하의 이창호 9단이 오목대결에서 무너졌다.

이 9단은 1일 오후 1시30분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하이원) 강원랜드 호텔 도깨비 광장에서 제37회 명인전 부대행사로 열린 하이원 최영 사장과의 천선 대결에서 29수 만에 지고 말았다.

백을 진 이 9단은 최 사장의 계속된 공격을 특유의 기다림으로 방어해 나갔으나 아랫변 공방에서 발생한 흑의 4-3 진(陣)에 말리고 말았다.

최 사장은 “이창호 국수와 바둑 한 수를 뒤 보는 것이 소원이었으며 오늘 자리는 정말 영광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기 결과는 흑이 뒷변에서 4를 만들며 선제공격에 나섰다면 이번 대결은 이 9단의 승리로 나왔다.

패인을 초반 수비 치중으로 자평한 이 9단은 “몇 년 만에 오목을 뒀지만, 오늘 대결은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라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2006년 7월 27일에 제2기 한국불가 정보배 결승 제1국의 해설자로 나선 이후 꼭 3년 만에 ‘반외(鰐外) 나들이’에 나선 이 9단은 이날 팬들 앞에서 그림틀러의 “천사를 찾아와-사바-사바-”에 맞춰 엉덩이 앞부분을 살짝살짝 쳐주는 춤을 추기도 했다.

이어 이 9단은 지도대국을 원하는 일반인이 교대로 3수씩 착수하면서 도전하는 방식의 릴레이 바둑과 다름가, 사인회, 포토타임 등으로 팬들과 즐거운



바둑 이창호 9단이 1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호텔 도깨비 광장에서 제37기 명인전 부대행사로 하이원리조트 최영 사장과 오목대결을 하고 있다.

시간을 가졌다. 이창호의 오목 실력은 바둑TV를 통해 내달 19일 정오에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재봉 전 매경 회장 별세

김재봉 전 매일 경제신문 회장이 지난달 31일 뇌출혈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 김 전 회장은 1932년 고향에서 태어나 광주 송일고와 한양대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60년 경향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사, 1971년 매일경제신문으로 옮긴 뒤 편집국장, 사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5·18 유가족이 익사 위기 어린이 구했다

행불자가족회 김성호씨

화순 도암면 용강리서

5·18 유가족이 최근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처한 6세 어린이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이다.

지난달 31일 화순 도암면에 따르면 5·18 행불자가족회 임원인 김성호(46·광주 광산구 우산동)씨



는 것을 보고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하고 응급조치를 마쳤다

당시 국지성 호우로 전날 하천물이 많이 불어나 물살이 거세 자칫 조

는 최근 화순 군 도암면 용강리 중장터 신다리밭에서 물놀이를 하고 놀던 어린이 2명이 물에 떠내려가

는 것을 보고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하고 응급조치를 마쳤다

당시 국지성 호우로 전날 하천물이 많이 불어나 물살이 거세 자칫 조

금만 났었다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 날 뻔한 상황이었다.

김성호 씨는 “어린이가 떠내려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구조했고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서는 나서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겸손해 했다.

한편 화순 도암면은 공적심의위원회의 의의를 거쳐 연발에 김씨에게 표창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박성기·전복순씨 장남 선우군 김양호·이만순씨 장녀 수진양=12일(토) 오후 3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한강홀), 피로연 6일(일) 낮 12시 삼화식당(구 현대극장 맞은편)

▲김태규씨 장남 진(화순 전남대병원)군 양화영(전 광주시의회 사무처 공보담당) 차녀 은미(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양=13일(일) 낮 12시20분 메리어트 웨딩홀 1층.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양정운) 월례회=7일(월)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향우회

▲재광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채정)=6일(일) 오후 7시 두암동 한우촌.

종친회

▲창원황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4일(금) 오전 11시 농성동 신정.

▲여흥민씨 광주지부 종친회(회장 민병휴)=5일(토) 오전 11시 대인동 화랑군회관.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교)=7일(월) 오후 6시30분 화랑궁식당. 018-616-575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용 사용할 경우 062-1366.

▲2009 자원봉사 정책토론회=긴급지원가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연계방안 모색 10일(목)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나로우주센터, 소록도, 능가사 방문 등 가족문화탐방 실시=6일(일) 문화전당역에서 오전 8시 출발, 오후 8시 도착, 광주불교교육원(062-228-9098)

▲만성질환관리·영양·우울증 및 스트레스·음주관리·흡연과 금연 강의=12월31일까지. 대상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일반 및 집중관리 등 질환자. 두암보건지소 2층 보건교육실. 062-410-8195.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모집

▲산수도서관 제12회 서예교실 무료수강생 모집=3일(목)까지 접수하며 수강일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12시까지. 062-232-6694~5.

▲전통주 과일주(와인) 제조법 수강생 모집=9일(수)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매주 수요일) 호남대 평생교육원. 010-4568-0700.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람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불어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견강요법 강좌(자연치유력 향상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1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말반(오전 10시~12시)·야간반(오후 7시~9시) 062-230-7700~2, 010-6271-8475.

▲백운선 다이빙스쿨 회원 수시모집=잠수교육, 스킨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광석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시계·배계·주차장·방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회원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 모집=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보뷰엔터 살사동호회 회원 수시모집=총장로 3가 총과 앞 더바디샵 지하, 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부음

▲정수길씨 별세 찬교·찬식·찬대·연미씨 부친상=발인 3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명성훈씨 별세 화옥·화숙·화래·정순·정자·옥씨 부친상 정재신·황호준(㈜대성건재 대표)씨 빙부상=발인 3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곡석현씨 별세 민기·덕기·장오·문용(솔로보신용정보 지사장)·영준·옥덕·인순·숙희씨 부친상=발인 3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주덕례씨 별세 채재주·건희씨 모친상=발인 2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정주성씨 별세 중용·한석(조선대병원)·회정·해경씨 부친상=발인 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찬식씨 별세 동오·동완·유미씨 부친상 순희석(조선대 치과병원)씨 빙부상=발인 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정재수씨 별세 현우·세린·은선씨 부친상=발인 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정성열씨 별세 용호·용준·용인·미정씨 부친상=발인 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영희씨 별세 선민(쌍용정보통신 부장)씨 부친상=발인 2일(수) 광주 성요한병원 장례식장 2층. 062-510-3005.

